

골목상권공동체와 협력, 민생경제에 활력을

전주시, 골목상권협의회 대표 35명과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민생경제 회복’을 최일선 과제로 풀어가고 있는 전주시가 경기 불황의 여파를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골목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역 골목상권협의회 전·현직 회장 등 상인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골목상권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민생경제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목상권 대상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인들이 직면한 경기불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일선 과제로 풀어가고 있는 전주시가 경기 불황의 여파를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골목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로 했다. 시는 골목 상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후 실현 가능 여부 및 타 부서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도 골목상권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생활 공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만큼 골목상권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공동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0

만 원씩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주시역 골목상권 상인들이 모여 상권을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전주한계장터’를 개최하는 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에 녹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주시립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확대 △활성화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변역의 중심에는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우리 상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올해 전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시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복기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6일 정례조회에서 2024 산지온라인 연도대상 최우수상을 익산원예농협에 시상했다.

‘2024 산지온라인 연도대상’ 최우수상

익산원예농협, 81개소 대상 종합평가서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6일 정례조회에서 2024 산지온라인 연도대상 최우수상을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화)에 시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익산원예농협은 전국 산지온라인사업 운영 농협 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산지온라인 연도대상’은 온라인 사업실적, 판매촉진(홍보),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농협을 선정하는 상이다.

익산원예농협은 2005년 자사물 ‘농협이마켓’을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2024년 온라인 매출이 전년대비 129% 증가한 2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매출이 83% 증가하며 8,100만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익산원예농협은 외관은 다소 미흡하지만 맛과 영양이 뛰어난 ‘꽃난이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가공업체) 대비 약 22%~3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농가의 수취가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위해 산지온라인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지농협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산물 판매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화 익산원예농협조합장은 “우리농협은 농가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윈스톰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북전주농협, 제3기 여성대학 개강식 성황리 개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5일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북전주농협 여성대학 개강식을 수강생과 내·외빈의 축하를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했다.

북전주농협 여성대학은 여성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농업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제3기 여성대학은 이전 기수와는 다르게 본인 여성조합원 뿐만 아니라 남성조합원의 배우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이번 제3기 여성대학은 총 58명의 교육생이 매주 수요일마다 12회에 걸쳐, 건강과 행복, 웃음치료, 정리 수납 기술, 자산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긴급 ‘가축질병 방역대책회의’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전북지역은 2023년에 이어 12월 5일 김제 공덕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KAD)가 첫 발생한 이후 김제 용지, 부안 백산 등에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질병 방역 추진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방역대책회의를 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월부터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 축협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46대를 활용하여 가금농가 진출입로와 야

생조류 철새도래지 주변 등 취약지역의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비축기지를 6개소(정읍, 고창, 부안, 완주, 임실, 남원) 운영하여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을 긴급상황 및 초동대응용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5개소(남원, 김제, 진안, 장수, 고창) 거점 소독시설에서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소독을 통해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2023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다수발생한데 이어 올해

도 발생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 주변 소독 등 전염병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축산농가 방역 교육 및 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주요한 만큼 사육종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당국(☎1588-9060 /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동절기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난 7일 군산에 소재한 (주)엔아이티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동절기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주)엔아이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일일 최대 340.8톤까지 처리 가능한 시설로, 이날 현장에서는 반입된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소각시설 가동 현황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시설 개선계획도 확인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송 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겨울철 한파와 잦은 폭설에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복기 기자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초청 간담회

전북건설단체연합,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진행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5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공사비 상승,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

교통국장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공사 예타 통과에 주력하고, 어려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 및 대형공사 적정규모 분할발주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복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